

<論說>

닭의 外部寄生蟲驅除의 必要성과 經濟的利益

金 敎 憲

家畜이나 家禽의 寄生蟲을 驅除해주는 일이 좋은 일이라는 事實을 否認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 些少한일 (一例로서 닭의 外部寄生蟲을 驅除해주는 일)이 數億원의 農民所得의 增減을 左右한다는 事實에 對하여 注意하는 사람은 別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들은 日本의 米穀反當收穫量이 우리의 것보다 越等함을 잘 알고 있고 美國의 養鷄產卵率이 우리의 것보다 높은 點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生産原價가 우리네 것보다 적다는 點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後進國民들은 그들의 共通된 通弊로서 先進國民들의 자랑스러운 結果를 보고 歎할줄만 알고 그 原因을 잘 究明하여 스스로도 그것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意欲과 努力에 인색하며 誠實하지 못한 點이 있다.

昨今 韓國作物學會長 池泳麟教授가 日刊紙(東亞日報 1963. 7. 2日字)에 發表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年間 300萬石(40萬噸, 20億원 相當)의 米穀이 病蟲害로 因하여 每年 喪失되고 있다고 밝힌다음 日本의 農藥消費額은 韓貨로 換算하여 260億원인데 比하여 韓國은 單 7,000원에 不過하다고 比較하면서 우리나라의 曄한 後進性을 痛歎한바 있다.

그런데 病蟲害로 因한 被害와 國家的 損失은 非單 植物에게 限한아니라 動物(家畜禽)에게 對하여도 똑같은 形便에 놓여 있다. 畜産部面에 있어서도 簡單한 理智와 적은 投資額(蟲藥값)으로서 能히 救濟할 수 있는 數千數萬個의 鷄卵을 每年 病蟲害로 因하여 喪失하고 있는 터이며 數十萬弗의 外貨獲得을 할수 있는 貴重한 資源을 不知不識間에 내버리고 있는 우리의 現實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現在 國家의 모든 資源과 生産機構를 總動員하여 食糧을 增産하고 또 農民의 所得을 向上시키려고 努力하고 있는 터이며 따라서 여러가지 效率的 方案을 摸索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留意할 點은 어떤 새로운 資源 또

는 新規事業을 開發育成하는 것보다도 既存된 生産構造의 能率을 改良하고 補完하는 方法이 보다 容易하고 時間的으로 效果가 빠르고 意外로 利益이 크다는 點이다.

既存의 生産機構를 成功的으로 運營할 수 없는 資格으로서 새로운 事業을 처음부터 만들어 成功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極히 적은 費用과 努力으로서 當然히 막을 수 있는 莫大한 損失을 放置해 둔채 많은 費用과 時間을 要하고 所得이 大端치 않은 새로운 것에 끌려서 방대한 國家的 精神力을 消費하고 있는 것이 아닐가.

어떤 新規事業을 通하여 一年에 300萬石을 더 增産하기란 至極히 어려운 일이지만 病蟲害를 막음으로서 年年히 좀먹어없어지는 300萬石을 救濟하여 되 찾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病蟲을 막기 爲한 費用은 300萬石을 外國으로 부터 求乞하고 사들이는데 쓰이는 돈과 努力에 比하면 엄청나게 적은 것으로 足한 것이다.

現今動植物에 對한 病蟲害驅除의 必要성과 그 認識이 漸高되어 가는 이때에 筆者는 닭의 外部寄生蟲驅除의 必要성과 그것이 農民所得乃至 國家的 利益에 對하여 적지 않은 影響이 있음을 力說코져 한다.

問題의 內容을 要約하여 말한다면 年中 닭의 產卵能率이 激減하는 夏節에 外部寄生蟲을 驅除하고 適當한 環境을 付與하므로써 닭 한마리가 一年間에 알 10個씩을 現在보다 더 낳게 하자는 것이며, 그 方法과 可能性, 또 그것이 現在 一千萬首以上の 닭을 保有하고 있는 우리 農民 全體에 미치는 經濟性에 關하여 言及한 것이다.

即 닭은 日當 飼料攝取量이 많을수록 產卵率이 增加하는 法이며 하루에 먹는 飼料量의 多寡는 日照時間(季節에 따라 變動되는)의 長短과 比例되는 것이 原則이다. 그렇다면 年中에서 日照時間이 가장 긴 여름에 닭들은 飼料를 제일 많이 먹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알을 더 많이 낳아야 할 터임에도 不拘하고 事實

은 正反對로 여름만 되면 產卵率이 激減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實情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原因이 무엇인가. 그 理由로 세가지 點을 指摘할 수 있다.

첫째는 봄철 產卵性이 가장 旺盛할 때에 應分の 榮養供給을 못하였기 때문에 여름철에 들어 體力이 極度로 衰盡해지는 點이고

둘째로는 닭이란 모든 動物中에서도 體溫이 가장 높은 動物인데다가 여름철에도 털옷(羽毛)을 쓰고 있는 관계로 特히 시원한 環境을 付與해야할 것인데도 不拘하고 大概是 무덥고 狹少한 鷄舍안에 數十乃至數百마리를 無理하게 監禁하게 됨으로 더위를 이겨내지 못하게 됨이 그 둘째 原因이고

세째로 重大한 原因은 外部寄生蟲에 依한 莫甚한 被害이다.

여름철에 닭들이 하루(24시간)를 生活하는 實態를 有心히 觀察하면 그들의 實情이 얼마나 딱하고 悲慘한가를 볼수 있으며 到底히 正常的 產卵을 할수 없는 理由를 잘 알수 있다.

낮에는 가려움(寄生蟲에 依한 痒感)과 더위 때문에 土砂에 딩굴고(砂浴) 그늘진 곳을 찾아 헤메기에 充分한 採食을 할겨를이 없다.

그리고 밤에는 그들의 靜止狀態를 노리는 外部寄生蟲의 攻撃 때문에 밤새도록 “푸드득” 거리며, 아무리 굶고, 날개치며 털어보아도 떠러질 까닭없는 집요한 吸血鬼(寄生蟲)들 때문에 每日밤을 뜯눈으로 새우게 된다. 새벽이 되면 먼동이 트기도전에 生地獄같은 窠에서 뛰어 내린다.

새벽공기 시원할 무렵에 물을 마시고 머기를 칩고 있노라면 곧 災魔의 太陽攻勢가드려 닥친다.

이렇게 되면 벌써 닭들은 머기통엔 關心이 없고 앞을 다투어 適當한 待避所를 찾게 된다.

그러나 數千百首의 닭이 各各 넓직하게 퍼지고 시원하게 避暑할 수 있도록 마련된 鷄舍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이 볼 수가 없는 實情이다. 닭들은 各色寄生蟲과 “암모니아”가스에 充滿된 좁은 울타리 속에서 呻吟하면서 원수 같은 여름철지나가기를 苦待하는 수 밖에 만 도리가 없다.

이와같이 悲慘한 生活이 每日처럼 되푸러 되는 터이니 日照時間은 길지만 닭이 머기를 充分히 먹을 수도 없고 따라서 알을 제대로 낳아 줄수도 없을 것은 顯한 노릇이다.

닭들의 悲痛한 實情엔 아랑곳없이 無心한 主人님들은 알안 낳아준다고 야단이며 닭을 더욱 푸개접하게

된다.

여름철에는 닭에게도 한번쯤은 言權을 주어 無心한 主人님들에게 抗辯케 하고 싶다. 이런 닭들을 代身하여 主人들에게 呼訴하는 것이 獸醫師의 辯이다.

“여름에도 產卵을 원하거던 닭몸에 우굴거리는 外部寄生蟲을 驅除해 주고 될수 있는 대로 運動場과 닭의 잡자리를 시원하게 마련해 주라오”

獸醫師들의 이러한 呼訴는 沃코 닭들을 爲한 慈悲心에서가 아니다. 實은 여름철에도 알을 잘 낳아주는 기특한 닭들을 보고 微笑짓는 主人의 滿足한 얼굴이 아쉬워서 이렇게 의치고 있는 것이다.

닭들에게 “이약”(虱驅除藥)을 뿌려주고 生活環境을 좀 더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정도의 일이라면 蟲藥값이 몇푼되는 것도 아니오 그일 自體가 別로 常識以上の 技巧을 喪하는 것도 아니다.

少額의 投資(藥값)로서 足하고 누구든지 손쉽게 할수 있는 簡單한 일, 이것을 實地行動으로 實踐함으로써 夏季에 생기는 產卵激減을 決定的으로 防止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結果的으로 數億원의 農民所得增加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例컨데 여름에는 發情할 수 없는 緬羊으로 하여금 人工的으로 溫度와 照明時間을 調節해 줌으로서 停止되었던 精蟲을 生成케할 수 있고 同一한 理智를 應用하여 產卵을 決定的으로 促進하는 “點燈養鷄法”의 效果等に 머루어 볼때 夏季의 닭의 管理條件을 多少改良함으로써 現在와 같이 여름의 產卵率이 急轉直下하지 않도록 할수 있음은 疑心할 餘地가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現在 닭한마리에서 年中을 통하여 120個밖에 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數多히 있는 反面에 잘하는 사람들은 平均 220個에 產卵率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美國에서는 적어도 250個를 낳아야 收支가 맞는다고 하는터이며 日本의 記錄鷄는 一年에 365個를 낳게 하였다는 事實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事實은 우리의 生産能率이 저들과 같은 養鷄 方法을 採擇함으로써 大幅增進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歷然히 말하여 주는 것이다.

寡産期인 여름철에 닭한마리가 現在보다 100個는 始捨하고, 10個씩만 더 낳아준다고 하여도 1,000首를 기르는 사람은 年 10,000個의 增産을 거둘수 있을 것이고 40,000원이라는 意外的 收入을 얻을 수 있을 것이 分明하다.

그렇다면 100萬首에 對한 增産額은 4,000萬원이 될 <80년에 계속>

- 28. 豆腐製造業
- 29. 糖豆製造業
- 30. 麵類製造業
- 31. 食用油製造業
- 32. 乳酸菌飲料製造業
- 33. 통조림 또는 병조림 食品製造業(前各號에 該當하는 營業을 除外한다)
- 34. 添加物輸入販賣業(輸入添加物의 製劑, 加工, 小分營業을 包含한다)
- 35. 其他 保健社會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營業

② 前項第8號, 第9號, 第11號, 第14號, 第18號中 水産物에 關한 業 및 第33號中 水産物을 原料로 하는 業의 業種別衛生施設基準을 定할때에는 農林部長官과 第27號의 業種別衛生施設基準을 定할때에는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1條(營業許可의 申請) ① 法第23條의 規定에 依하여 前條各號의 營業中 第8號, 第9號, 第11號, 第14號, 第18號中 水産物에 關한 業 第27條, 第33條中 水産物을 原料로 하는 業 第34號 및 第35號에 該當하는 營業以外의 營業의 許可를 받고자하는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申請書를 當該營業所의 所在

<55면에서 계속>

技術者가 責任者로 配置되어 檢疫의 萬全을 期하고 있습니다. 傳播力이 強烈한 或種의 傳染病은 잠간의 不注意한 點을 타고 언제 어떠한 經路를 밟아 瞬息間에 國內 家畜에 傳播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에對 備하여 더욱 嚴重한 檢疫을 實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極히 一部分의 家畜傳染病을 除外하고는 比較的 惡性 疾病에 汚染되어 있지 아니한 現國內 家畜傳染病 發生 狀態를 繼續 維持하고 國內家畜防疫에 徹底를 期하여 畜産振興에 큰 뒤받침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筆者가 느낀바에 依하면 外國人 特히 美國人이나 日本人의 境遇 그네들이 家畜 및 畜産物에 關하여 우리 一般대중이 生覺하고 있는 것보다 尙상의로 훨씬 깊은 衛生觀念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關한 知識도 相當한데 對하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反對로 우리나라에서는 知識層으로 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檢疫을 받기를 꺼려하는 例가 許多함은 甚히 한심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次號續) (筆者=農林部家畜衛生課勤務)

地를 管轄하는 區廳長(서울特別市에 限한다 以下 같다) 市長 또는 郡守를 거쳐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但 前條第1號 또는 第12號의 營業의 施設이 서울特別市와 道 또는 그 以上의 管轄區域에 在하는 것인때에 그 申請書를 그 主된 營業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を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에게 提出하고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

以下省略

(解說)

畜生物加工處理法과 直接的인 關係가 있는 食品衛生法과 同施行令의 條項은 以上과 같다 여기서 食品衛生法에서는 閣令인 食品衛生法施行令으로 畜産物加工處理法에 規定된 것과 水産物 그리고 酒類에 對하여는 그 適用對象에서 排除하고 있는 것이다.

食品衛生法施行令第10條 및 第11條에서 第18條 및 第33號中 水産物을 除外하도록 明文規定한 것은 畜産物을 畜産物加工處理法에 明文規定이 있음으로서 다시 表示할 必要를 늦기지 않은 것이고 水産物衛生에 對한 法律이 없기 때문에 明文表示를 한 것으로 思料한다. (筆者=農林部 獸醫係長)

<57면에서 계속>

것이오, 現在 1,300萬首를 保有하고 있는 우리나라 全體農民에게 미치는 影響은 實로 數億圓의 增收與否를 左右할수 있는 問題로서 零細한 우리 農民의 現實에서 불에 過少評價할수없는 重大한 일이 아닐수 없다.

닭 한마리에 對하여 現在보다 100個를 더 增産토록 하는 일은 여러가지의 努力과 條件이 必要한 것이며 또 이것은 一朝一夕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위에 指摘한 바와같은 簡單하고 實利的인 方法을 通하여 于先單 10個씩의 確實한 增産을 全體農民에게 바라고 싶다.

農民들의 實利를 向上시키는 手段은 언제나 遠大한 理想論의 되푸리보다도 當面現實에 立脚한 卑近한 問題를 改良實踐해 나가는데 있다.

이제 病蟲害를 除去하므로써 增産을 圖謀할 수 있는 事實에 對하여 그 利害得失을 이 以上 더 曰可曰否할 必要는 없다.

問題는 어떻게 하던 農民들이 隨時로 어떤곳에서나 低廉한 값으로 올바른 蟲藥을 入手케할 수 있겠는가 라는 當面問題에 歸着되는 것이며 이것은 全國에 組織網을 갖이고 있는 “農協”活動에 期待하는 것이 最善의 解決策이 될 것으로 믿는다.

(筆者=建國大畜産大教授)